



尹 '공정 수능' 발언...수험생·교육현장 '대혼란'

수능 5개월 앞둔 시점 '변별력 약화' 우려 확산
중상위권 "한 문제 실수해도 시험 망칠 것" 울상
학원가 "애들만 불쌍" 정확한 가이드 라인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2024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을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고 발언함에 따라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불수능', '물수능' 공방과 함께, 변별력을 가릴 소위 '킬러문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18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수능 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해 교육 현장에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능의 경우) 변별력을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문책성 경질한 데다,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때문에 올해 수능 난이도를 미리 평가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6월 모의평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수능'이 되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변별력을 가릴 비문학 문항을 없애면 독해력을 무었으로 평가할 지 의문"이라며 "수능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수능 기조를 바꾼다고 하면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독해능력을 판별하는 것이 수능의 본질"이라며 "경제, 사회, 과학 전반에 대한 사전 지식을 채우기 위해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국어교육"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광주지역 한 고3 수험생은 "변별력이 없다면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한 문제로 시험을 망치고 등급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며 "시험이 얼마 안남았는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수험생 자녀 2명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누리꾼은 "우리 집은 이미 초도화가

됐다"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수학 '타감사'인 현우진씨도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애들만 불쌍하지. 9월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지"라며

"지금 수능은 국·수·영·탐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바란다)"이라고 적었다.

국어 강사인 이원준씨도 인스타그램에 "더 좋은 대안이 없다면 설부른 개입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정한 수능'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진행된 종합감사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다.

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정한 수능'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점검·확인하는 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진행된 종합감사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다.

'동부통합청사' 재편 전남도 조직개편안 통과

동부본부 4개 실·국 체제 확대...행정수요 신속 대응
도민 불편 해소 권역별 경쟁력 ↑ 글로벌 도정 뒷받침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를 동부통합청사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지난 16일 원안대로 전남도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도의회 제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부본부 조직 확대 개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59명 중 찬성 44명, 반대 11명으로 원안 통과했다.

개편안은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 체제로 재편하고 민선 8기 글로벌 도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관광문화체육국을 기능별로 세분화해 관광체육국과 문화융성국으로 분리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

젝트 추진으로 관광 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화 관련 업무 역시 영상콘텐츠,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등 급속히 커지고 있는 문화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융성국을 설치했다.

또한 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한 정부방침에 따라 관련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대학지원팀을 대학혁신추진단(TF)으로 확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벌30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균형성과담당관을 신설해 국가균형발전과 도내 시·군의 고른 발전을 함께 이끈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급 본부장을 새롭게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동부지역본부장은 소관 실·국을 총괄·조정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신속한 결정 권한을 갖는 등 책임임을 한층 강화했다.

김영록 지사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새롭게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해준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의회와 의소통에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신산업 육성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해준 만큼, 도청 공직자 모두 더 열심히 뛰여 도민 행복과 전남 대도위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Today	
5·18교육관 시직영으로 결론	7면
20대 청년 35만7천명 "신다"	12면
염지 '골절' 김선빈 1군 말소	16면



시원한 분수 속에서... 지난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전남에 내리던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 하니음스포츠클럽 광장 바닥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6월인데 첫 폭염특보...오늘 '더 덥다'

광주·담양 35도 예보...내일 더위 꺾는 비

지난 17일 광주·전남에 올레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지겠다.

▶관련기사 6면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 광주·전남지역 최고기온은 광주·담양 35도를 최고로 장성·화순·곡성 34도, 나주·함평·구례 33도, 영광·영암·무안 32도, 목포·순천·광양 31도, 신안·강진·해남 30도도 예보됐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담양에 올레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날 광주·전남 주요 지점 최고기온은 곡성(석곡) 33.1도, 구례·순천(황전) 32.7도, 광주(과기원) 32.6도, 담양(봉산) 32.4도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18일 오전 11시 구례·곡성으로 확대 발효됐다. 주요 지점 최고기온은 광주(과기원) 34.6도, 곡성(석곡) 34.1도, 순천(황전) 33.9도, 담양(봉

산) 33.5도, 구례 33.4도, 광양·화순 33.3도, 여수(광항) 32.4도 등이다.

다만, 이같은 무더위는 20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다. 이날 광주·전남 강수량은 5~20mm로 최고기온은 19일보다 2~4도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9일까지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폭염특보는 습도가 반영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된다. 주의보는 체감온도 33도, 경보는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해가 뜨면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 ❗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0.41kWh**
- ❗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하기 **0.36kWh**
-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0.32kWh**

하루 1.09kWh 절감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4% 절감

전력 사용량	299 kWh	↓ 30kWh 절감	269 kWh
전기요금	55,290 원	↓ 7,520 원 절감	47,770 원

주요 가구량 월평균 전력사용량(299kWh/월) 기준(출처: 2020년 에너지조사) 주가 전기요금은 한전 사이버지점 전기요금계산기(주요용 지열, 기타제열, 전자기 및 부가세포함)를 통해 산출

일곱가지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전자레인지 자연해동 후 사용	0.19kWh/일	비데 온열기능 끄기	0.1kWh/일	세탁기 세탁물은 모아서	0.09kWh/일	전기밥솥 보온시간 ↓	0.06kWh/일
-----------------	-----------	------------	----------	--------------	-----------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하루 1.08kWh 한달 32.4kWh	시원한 차림으로 쿨맵시 실천하기	하루 0.81kWh 한달 24.3kWh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하기	하루 0.54kWh 한달 16.2kWh
---------------------	--------------------------	-------------------	--------------------------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정보연계단

세마을운동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CMYK